

장정심의 시에 나타난 기독교적 세계관 고찰

- 자아 인식과 민족의식 형성에 있어 -

맹문재*

〈차례〉

1. 서론
2. 장정심 시의 기독교적 세계관
 2. 1 자아 인식
 2. 2 낙원 인식
 2. 3 민족 해방 의식
3. 결론

〈국문초록〉

장정심(張貞心)은 1898년 경기도 개성에서 태어나 1947년 타계할 때까지 시작 활동과 사회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구했다. 1927년 『청년』지에 『기도실』 등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한 뒤 시집 『주의 승리』(1933)와 『금선(琴線)』(1934)을 발간했다. 또한 여성 선교의 시각으로 『조선 기독교 50년 사화』(1934)를 편찬했다. 장정심의 작품 활동은 조선인들의 사상과 행동이 제약받는 일제 강점기의 상황에서 추구한 것이기에 주목된다. 이 논문에서는 장정심의 시 세계를 자아 인식, 낙원 인식, 민족 해방 의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장정심은 기독교 신도로서의 신앙 고백을 넘는 세계인식을 지향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자아 인식을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아 인식을 개

* 안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인적인 차원을 넘어 역사적인 차원으로 확대했다. 일제의 식민 통치에 고통 받는 조선인들을 역사의식으로 품고 낙원을 염원한 것이다. 그리하여 시인은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가진 조선인이라는 자부심으로 민족의 해방을 노래했다.

핵심어: 장정심, 기독교 시, 자아 인식, 낙원 인식, 민족 해방 인식, 『주의 승리』, 『금선(琴線)』.

1. 서론

1930년대의 시문학사에서 장정심의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정심은 동시대의 여성 시인들 중에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자아 인식과 낙원 인식 그리고 민족 해방 의식을 투철하게 노래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시인의 시세계는 조선인들의 행동과 사상이 제약받는 일제 강점기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큰 의의를 갖는다.

장정심은 1898년 경기도 개성에서 태어났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신교육을 받았다. 1925년 감리교에서 운영하는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이화학당 유치사범에 진학했다. 졸업(제3회) 후에는 고향의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 부설 유치원에서 교사 생활을 했다. 그리고 3·1운동 이후 생겨나기 시작한 여성운동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개성 감리교회 청년 조직인 엠티청년회(Epworth League)¹⁾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개성 여자교육회에서 강사와 임원으로 활동했고,²⁾ 개성 신간회의 간사로도 활동했다.³⁾ 장정심

1)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의 고향 이름에서 따왔다. 해방 전까지 각종 계몽운동과 독립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헤이그 밀사로 파견된 이준 열사, 상동 감리교회 전덕기 목사, 유관순 열사,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인 최용신 선생 등이 엠티청년회에서 배출되었다. 『동아일보』, 1997. 8. 4, 21쪽.

2) 『동아일보』, 1920. 8. 26, 4쪽.

3) 『동아일보』, 1927. 8. 11, 4쪽. 이외에도 청년연합회 결성에 여자교육회 대표로 참

은 서울의 감리교 협성여자신학교에 다시 입학해 공부의 영역을 넓혔다. 그리고 1927년 『청년』에 시작품 『기도실』 등을 발표하면서 시인이 된 뒤 시집 『주의 승리』(한성도서주식회사, 1933)와 『금선』(한성도서주식회사, 1934)을 발간했다. 또한 여성 선교의 시각으로 『조선 기독교 50년 사화』(감리회신학교, 1934)를 편찬했다. 장정심은 1938년 조선기독교여자절제회의 서기를 거쳐 제4대 총무가 되어 금주 금연 운동을 전개했다.⁴⁾ 그리고 일제의 경찰에 끌려가 협박과 공갈을 받고 신사참배와 총후보국 강조 주간 행사에 참여할 것에 굴복했으나, 건강을 이유로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았다. 역사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친일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장정심은 1947년 개성의 자택에서 병환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떴다.⁵⁾

조선에 기독교가 정착한 것은 일제에 의한 식민지가 본격화되면서였다. 일본은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자신들의 침략 전쟁에 방해가 되는 명성황후를 시해한 것을 넘어 을사보호조약(1905), 한일병탄(1910) 등을 강제적으로 체결하며 조선을 파죽지세로 지배해 들어왔다. 이와 같은 정치적 격변의 상황에 휩싸인 조선인들은 큰 충격을 받고 민족적 각성과 대응책의 마련 차원에서 기독교에 관심을 보였다. “기독교의 새로운 국면은 여기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새 시작은 한국 사람들의 민족적 분노에 있었던 것이다. (...) 한국의 정치적 허약에 대한 대책, 그리고 국가 존망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해답을 기독교 안에서 찾아보려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히 있었”⁶⁾던 것이다.

그렇지만 조선에 들어온 기독교는 교육사업이나 의료사업 등을 통해 민족의 근대화에 기여했지만 한계점도 드러냈다. 기독교 선교사들은 이

석했고(『동아일보』, 1923. 11. 25, 3쪽), 조선여자청년회가 주최한 여자 현상 토론회에 참석했으며(『동아일보』, 1924. 7. 14, 2쪽), 여자 토론대회에도 참여했다(『동아일보』, 1924. 7. 19, 2쪽).

4) 윤은순, 「1920·30년대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 연구」, 박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2008, 49~56쪽.

5) 역사위원회 엮음, 『한국 감리교 인물 사전』, 기독교 대한 감리회, 2002, 413~415쪽.

6) 서광선, 「한국여성과 종교」, 『한국여성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524~525쪽.

전의 천주교 선교사들이 직접적으로 포교한 결과 신유박해(1801), 기해박해(1839), 대원군에 의한 병인박해(1866) 등을 당한 역사적 사건을 거울로 삼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포교 활동을 시행했다.⁷⁾ 따라서 조선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문제에는 거리를 두었다. 부흥회 등을 통해 복음 전달에 중점을 두고 교세(敎勢)를 확장해 나갔지만, 조선의 정치적인 상황에는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도들이 정치적 관심을 갖게 되면 많은 희생을 당할 것을 우려해 내세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 것이다.

그렇지만 장정심이 속한 감리교⁸⁾는 다른 종파에 비해 “자주성과 독립심 그리고 애국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독교 교육사업과 청년운동 및 문화사업의 전개를 통해 당시의 애국, 정치문화운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민족의식의 양양과 근대화에 이바지”⁹⁾한 것이다. 감리교의 이와 같은 사회 참여는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변화를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국교회와는 달리 새로 등장한 프롤레타

7) 정세화, 『한국 근대 여성 교육』, 위의 책, 290~295쪽.

8) 18세기 영국에서 창립된 프로테스탄트의 한 교파. 창시자는 웨슬리. 인간의 자유의지 중시, 평신도들에게 교회 개방, 교육 중시, 사회적 관심 교양 등의 특성 지님. 노예제도의 폐지, 절제, 미성년자 노동 폐지, 8시간 노동제 엄수, 대금업 폐지 등 사회개혁운동 일으킴. 1884년 고종이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매클레이에게 교육사업과 의료사업에 한하여 선교사업을 허락한 뒤 1885년 미국 북감리회 선교사 아펜젤러에 의해, 1895년 윤치호에 의해 미국 남감리교회 선교 시작. 1930년 남·북감리교회 통합. 일제의 식민지 통치가 시작되면서 감리교회의 영향력이 커짐. 특히 서재필이 조직한 독립협회가 1898년 해산되면서 민족운동의 중심이 됨. 서울 남대문에 있던 상동 감리교회가 대표적인 곳.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담임 목사인 전덕기를 중심으로 김구·이준 등이 전국감리교청년연합회를 소집하고 무효화 투쟁을 전개함. 뒤에도 이회영·김구·이동녕·이준·안창호·이승훈·이동휘·양기탁 등이 모여들어 독립운동을 모의하였고, 1907년에는 신민회(新民會)를 조직해 민족운동을 주도함. 민족운동의 전통은 3·1운동으로 이어져 33인의 민족대표 중 9명이 참여함. 그리하여 일제의 핍박이 가중되었는데, 수원 제암리 감리교회 대학살 사건이 대표적임. 일제 말 종교탄압으로 어용단체로 전락된 예도 있음.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65052>).

9) 권기호, 『감리교 선교사들의 개화기 교육 활동 연구』, 박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2010, 86쪽.

리아 계급을 전적으로 수용한 영국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¹⁰⁾ 이와 같은 토대 위에서 장정심은 일제의 탄압에 맞서는 사회 운동과 시작 활동을 추구한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장정심의 작품 세계를 본격적으로 고찰한 논문이 한 편도 없다는 사실은 우리의 폭넓지 못한 학문 풍토를 되돌아보게 한다.¹¹⁾ 부분적으로 고찰한 논문들도 장정심의 연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이명숙은 장정심의 작품 세계를 자연 친화, 역사의식, 자아실현의 의지와 님, 기독교적 신앙심 등으로 나누어 고찰했지만, 작품 세계 간의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보가 올바르지 않다.¹²⁾ 이길연은 장정심의 시세계를 시대적인 절망과 허무를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극복했다고 의미부여를 했지만 역시 연보가 바르지 않다.¹³⁾ 신흥규는 강미경의 논문을 복사하듯 그대로 옮겨 적었다.¹⁴⁾

이 논문에서는 장정심이 간행한 시집 『주의 승리』와 『금선』을 기초자료로 삼고 그동안 함몰되었던 시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장정심의 시집에는 자유시뿐만 아니라 시조와 동시도 수록되어 있는데,¹⁵⁾ 이 논문에서

10) 정기원, 「19세기 전반 영국 감리교와 노동계급」,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1997, 22쪽.

11) 부분적으로 고찰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①정영자, 「한국 여성문학 연구」, 박사학위 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1987. ②강미경, 「한국 현대시의 기독교 수용 양상」,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1992. ③이길연, 「1930년대 기독교 시의 현실 극복과 문학적 형상화-이용도와 장정심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6, 2005. ④이명숙, 「일제 강점기 여류시조 연구 : 김오남, 오신혜, 장정심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1997. ⑤신흥규,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기독교 의식 연구」,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1997.

12) ‘장정심이 일본 교오세이 여자신학교(협성여자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학교의 서기로 재직했고, 1938년 40세의 나이로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명숙, 위의 논문, 43~44쪽.

13) 이길연, 앞의 논문, 262~276쪽.

14) 신흥규, 앞의 논문, 27~36쪽.

15) 『주의 승리』에는 시 201편, 『금선』에는 시 181편(자유시 90편, 시조 70편, 동시 21편)이 수록되어 있다.

는 시로 통칭하기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장정심이 추구한 시세계를 자아 인식, 낙원 인식, 민족 해방 의식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하는데, 1930년대의 시문학사를 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장정심 시의 기독교적 세계관

2.1. 자아 인식

장정심의 자아 인식은 첫 시집 『주의 승리』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 시집에서 장정심은 예수의 출생에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힌 뒤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생애, 관계된 인물들, 사건 등을 작품화하면서 자신의 신앙 의지를 담고 있다. “나의 존경하는 나의 주시여/내가슴에 노래를 드르시오니/나의 마음에 사랑을 받아주소서”(『마음의 거문고』)라고 기도하고, 예수를 위한 길이라면 산도 강도 사막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죽엄의 길이라도 감사히 받을지니/살던지 죽던지간에 뜻대로만 쓰소서”(『님의 음성』)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의 원죄를 구원하기 위해 죽음을 당한 예수의 생애에 깊은 감화를 받고 영원히 동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장정심은 두 번째 시집인 『금선』에서 첫 시집에서 추구했던 예수의 전기적 사실이나 신앙 고백을 넘어서고 있다. 『주의 승리』에서 보여준 직설적인 표현들을 서정적인 감성과 비유, 상징, 시어 등으로 극복한 것은 물론 주체적인 세계관으로 자아 인식을 심화시킨 것이다.

석가래 세우듯이 세우나니
 땅을 깊이 파고 세우려하오
 화살을 보내듯이 곧을지니

자신을 먼저 바르게 하려고

막대를 세우듯이 세울지니
 지, 정, 의 세 개를 모아 세려고
 뚝섬을막듯이 막을지니
 한방울 물도 싹틈없이 하려고

- 「뜻세움」 전문

화자는 서까래나 막대를 세우듯이 “지, 정, 의 세 개를 모”으려고 한다. 지와 정과 의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 있는 지성(知性), 정서(情緒) 즉 감성(感性), 의지(意志)를 일컫는 것인데,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의 형상으로 보고 있다. 아담과 하와 역시 하느님과 같은 모습으로 타고 났지만 스스로 죄를 지음으로써 지정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인간의 지성은 하느님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감성은 하느님을 느낄 수 없도록 메말랐으며, 의지는 악을 행하는 죄의 종이 되었다고 본다. 그렇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이며 율법을 넣어 스스로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했으므로 하느님을 섬기면 지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위의 작품에서 화자는 “지, 정, 의”의 성령을 품으려고 “석가례를 세우듯이” “화살을 보내듯이” “막대를 세우듯이” 그리고 “뚝섬을막듯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신을 먼저 바르게 하”고 하느님을 품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하느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도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통합한 존재로, 결국 근대적 주체로서 자아를 인식하고 나서는 것이다. 근대적 주체는 완결된 세계 속에서 편안하게 숨 쉬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부단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장인의 수공이 얼마나 장한가
이제야 돌이라 할가 보배라 하지
우리의 마음도 쬐고 다듬어

쬐고 색칠한 저 조각상
예술의 미가 화려하다고
뉘라서 굴러 다니던 돌조각이라 할고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운 조각상 같이
- 「돌조각」 전문

화자는 훌륭하게 만들어진 비석을 바라보며 볼품없는 돌을 공들여 쬐고 다듬은 “장인의 수공이 얼마나 장한가”라고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도 쬐고 다듬”으면 그 비석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잘것없는 하나의 돌조각에 불과할지라도 제대로 갈고 다듬으면 충분히 지정의를 갖춘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화자의 이와 같은 자아 인식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¹⁶⁾는 『성경』에서도 확인된다. 하느님에 대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건축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자가 “마음도 쬐고 다듬”으려고 하는 행동은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를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한 존재의 자아는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서 성립된다. 다른 존재와 단절되거나 폐쇄된 것이 아니라 상호 작용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작품의 화자가 자신의 마음을 “쬐고 다듬”는 행위 역시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수행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자아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이 몸이 다시 되면 무엇이 되어볼까

16) 「유다서」 1장 20~21절.

사막의 샘이 되고 광야의 등이 되어
 행인의 마실 물 밝은 등 되어줄가 하였소
 - 「몸」 전문¹⁷⁾

위의 작품에서 하느님이나 예수가 직접 호명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막, 샘, 광야, 등, 행인, 물 등의 비유적 대상들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지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화자는 만약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사막의 샘이 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행인의 마실 물”이 되기 위해서이다. 또한 “광야의 등이 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행인들의 길을 밝혀 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이다. 이렇듯 화자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추구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자아 인식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화자의 이와 같은 자아 인식은 주체성을 지닌 것이다. 즉 하느님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성을 확립한 것이다. “나는 사유하는 한에서만, 의식 활동이 있는 한에서만 나로서 존재하며, 그 사유가 멈추는 순간 나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나의 존재의 지속성은 나 자신에 의해서 확보되지 않는다.”¹⁸⁾라고 데카르트가 신에 의한 세계와 한 개인의 창조는 매순간 행해져야 한다고 말했듯이, 장정심은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하여 장정심은 사회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고 절제운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감리교의 교리를 충실히 따른 것이다. 그 결과 일제의 탄압에 억눌린 삶을 살아야 했던 식민지 조선인들의 실정을 자각하게 되었다. 자아 인식을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따라서 장정심의 자아 인식을 이해하는 데는 일

17) 원문은 다음과 같은데 시집을 간행하면서 다소 퇴고했다.

“이몸이다시되면 무엇이될고하니/사막에 샘이되고 광야에 등이되어/행인의 마실 물 밝은달 되어줄까하노라” (경성 협성여자신학교 학생기독교청년회, 『백합화』 3, 1929. 1쪽)

18) 한자경, 『자아의 연구』, 서광사, 1997, 34쪽.

제의 식민 통치 상황을 인지해야 된다. 식민지 조선인으로서 겪어야 하는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맞서는 민족의식이 자아 속에 들어 있는 것이다. 이렇듯 장정심의 자아 인식은 개인적이거나 절대적인 차원의 개념이 아니다. 하느님의 지정의를 민족인들의 형상으로 삼고 그 구현을 추구하는 민족성과 역사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2.2. 낙원 인식

장정심은 『금선』의 첫머리에서 “조선의 정!을 노래하려고”(『금선』)라고 노래한 것을 비롯해 『금강산』, 『송악산』, 『선죽교』, 『두문동』, 『충신묘』, 『박연』, 『송경』, 『대동강』, 『세금정』 등에서 조선의 많은 산과 강, 유적지 등을 작품화했다. 장정심의 의도는 일제에 의해 훼손된 민족의 강토를 회복하려는 것이었다.

인간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영토를 인식하는 것은 근원적인 행동이다. 인간에게 시간과 마찬가지로 공간은 이 세계를 이해하고 행동하는 기본적인 틀이 된다. 그리하여 인간은 언제나 공간 속에서 타자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영토라는 공간은 그 구성원의 감정과 세계 인식을 배양시키는 역할을 한다. 조국에 대한 사랑이나 충성심 같은 국민 의식이 산출되어 국기(國旗)나 국가(國歌) 같은 상징이 만들어지고, 신성불가침이라는 관념이 생기며, 국민이라는 정체성이 나타난다. 그리하여 구성들에게 아버지의 땅이나 어머니의 땅으로 불리며, 타자가 침입했을 때 모국의 침범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국민의식의 성립은 국가의 내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단순히 특정 마을이나 촌락의 주민이기도 (...) 했지만, 동시에 특정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 국민이라는 의식이 다른 자기의식에 대하여 때로 우월하게 되는 사태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¹⁹⁾ 영토라는 등질적인

19) 와카바야시 미시오, 정선태 옮김, 『지도의 상상력』, 산치럽, 2006, 243~244쪽.

공간 의식이 국민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낳게 되는데, 장정심의 역사의식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남아 안개 덮여 솔 속에 가렸으니
 그대는 명성 같이 사시에 새론 빛이
 인간에 별유천지니 에딘이 아니었나든가?

풀 빛은 더 푸르고 단풍은 더 붉으니
 철저한 그대 뜻을 모를리 없었건만
 저대로 그리고자하나 슬어가 부족하오

구름을 휘어잡고 저 하늘 오르고저
 먼 산에 가린 솔은 너울 속 신부 같이
 햇빛에 거둬 비치어주니 선녀들이 아닐까?

만물의 주인공이 걸작품 예 두시고
 이 땅의 보배 되게 만인이 왕래하니
 에딘이 어디었나 하다 나는 연가 하였소

- 「금강산」 전문

금강산은 조선인들에게 아름다운 산의 대명사로 인식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았고 또 노래로 불려졌다.²⁰⁾ 금강산이 조선인들에게 특별히 아름답게 여겨진 이유는 형용할 수 없는 풍광뿐만 아니라 민족의 정기가 담겨

20) 일제 강점기의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갈 때 가장 많이 찾은 곳이 금강산과 경주였다. 맹문재, 『1930년대 여자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 고찰』, 『한국학연구』 29, 2008, 41~44쪽. 영국의 작가이자 지리학자로 잘 알려진 이사벨라 버드 비숍도 1894년과 1897년 사이 금강산을 다녀온 후 “아, 나는 그 아름다움, 그 장관을 붓끝으로 표현할 자신이 없다.”라고 썼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 이인화 옮김,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살림, 2001, 160쪽.

있기 때문이었다. 금강(金剛)은 ‘진리를 향해 물러나지 않는 굳은 마음’을 뜻하는데, 조선인들은 그 의미처럼 금강산을 정신적인 숭고함과 기개를 상징하는 명산(名山) 혹은 영산(靈山)으로 여긴 것이다. 금강산은 봄(금강산), 여름(봉래산), 가을(풍악산), 겨울(개골산)마다 별개의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다른 산에 비해 “풀 빛은 더 푸르고 단풍은 더 붉다”. “만물의 주인공이 걸작품”으로 만든 것이어서 “명성 같이 사시에 새론 빛이” 나면서 존재한다. “인간에 별유천지”여서 “먼 산에 가린 솔”이 “선녀들”처럼 보이기도 한다. “만인이 왕래”할 수 있는 “이 땅의 보배”인 것이다. 그리하여 시인은 “에덴이 어디였나 하다 나는 연가 하였고”라고 노래한다.

“에덴”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그의 아내인 하와가 살 수 있도록 야훼가 만든 동산을 일컫는다. 에덴동산은 히브리어로 ‘태고의 정원’ 혹은 ‘환희의 동산’이라는 뜻을 지녔듯이 낙원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야훼의 명령을 어겨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 된 장소이기도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낙원의 대명사이다. 시인은 금강산을 그 낙원으로 여기고 노래한 것이다.

이외에도 장정심은 아낙네들이 침략군을 물리치기 위해 행주치마에 돌을 담아 나른 행주산성(『행주치마』)이며, “이땅의 자손 같이/주리고 헐벗은몸 때되어 입혜”(『송악산』)주는 송악산, 민족의 자손들이 제 뜻을 흐르는 물처럼 펼칠 수 있는 박연폭포(『박연』), “임의 궁전이 비치”(『대동강』)는 대동강, “이 땅을 축복해주”(『충신의무덤』)는 선조들의 무덤, 그리고 일흔두 분의 충신들이 역사를 지킨 두문동(『두문동』) 등을 낙원 인식으로 노래했다. 조선의 산, 강, 유적지 등을 역사의식을 가지고 낙원으로 구체화시킨 것이다.

쇠라도 동녹이 덮였을것ियो
 돌이라도 깎였을것이였지마는
 정역이 합한 순결한 피라
 아직도 돌다리우에 뚜렷이 보이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기세찬 장마물 긴 세월간에도
 흙이 덮이고 패이고 흘러갔으련만
 아직도 저 흙 우에 뚜렷이 보이오

굉장하게 높이 쌓은 대리석 다리야
 한시간에도 수만사람이 왕래하것만
 선죽교 외롭고 적막한 충신의 다리야
 행객이 있거니 없거니 늘 붉어있고

그리하여 고려의 자손들이란
 피 식을 날이 별로 없이
 죄 없이 고결한 저 붉은 피가
 이 땅의 자손들을 길러주었소

- 「유적」 전문

“선죽교”는 앞에서 살펴본 금강산과는 특성이 다른 장소이다. 금강산이 풍광이 아름다운 명산이라면, “선죽교”는 비극적인 장소인 것이다. 따라서 “선죽교”는 일견 낙원의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시인은 충신의 정신이 배어 있는 숭고한 장소로, 다시 말해 민족인들이 품고 지향해야 할 역사적인 터전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선죽교”는 경기도 개성에 있는 돌다리로 고려 말기의 정몽주가 죽음을 당한 곳이다. 고려 말기 이성계는 공양왕을 폐위하고 조선을 건국하기 위해 세력을 모으고 있었는데, 고려의 충신으로 일컬어진 정몽주에게도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하여가」로 그 뜻을 전하자 정몽주는 충신답게 「단심가」로 거절했다. 그 후 정몽주는 선죽교에서 이방원이 보낸 일파에게 철퇴를 맞고 말았다.

화자는 정몽주의 그 충성심이 “쇠라도 동녹이 덮였을 것이”고 “돌이라

도 꺾였을” 정도로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지워지지 않았다고 노래한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기세찬 장마물 긴 세월간에도/흙이 덮이고 께이고 흘러갔으련만” 남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역이 합한 순결한 피라/아직도 돌다리우에 뚜렷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화자는 “외롭고 적막한 충신의 다리”를 붉은 마음으로 바라본다. 정몽주의 충성심이 여전히 살아 있기에 “고려의 자손들이란/피 식을 날이 별로 없”다고 믿는 것이다. 또한 “죄 없이 고결한 저 붉은 피가/이 땅의 자손들을 길러”줄 것을 기대한다. 정몽주의 충성심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미래를 여는 초석으로 삼는 것이다.

장정심의 이와 같은 미래 인식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연상시킨다. 『성경』에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라는 구절이 있다. 개인적인 의로움과 사회적 정의를 간절하게 소망하면 메시아가 와서 그와 같은 세상을 세워주리라는 것이다. 또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²¹⁾라는 구절도 있다. 의로운 일에 힘쓰면 천국 같은 낙원을 성취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위의 작품에서 장정심은 선죽교를 마치 『성경』에서 제시된 그 의(義)가 수행된 장소로 삼고 있다. 비록 정몽주가 비극적으로 죽임을 당한 곳이지만, 오히려 그의 충성심이 빛나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장정심은 선죽교를 민족인들이 품어야 할 역사적 성지(聖地)로 제시하고 있다. 비록 육체적인 희생이 따른 곳이지만 올바른 정신 가치가 구현된 곳으로 기리는 것이다.

따라서 장정심이 선죽교를 노래한 의도는 민족적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조선인들이 비록 일제의 억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족 의식을 지키고 있으면 역사적 존재로 영원히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장정심의 낙원 인식에는 민족의식이 들어 있다. 민족인들이 자유롭게

21) 『마태복음』 5장 6~10절.

살아 숨 쉬는 장소, 즉 민족의 해방의 낙원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2.3. 민족 해방 의식

장정심이 창작 활동을 한 1930년대는 이전 시대와는 달리 새로운 시들이 등장했다. 이전 시대에 큰 영향을 끼쳤던 카프문학의 목적의식을 탈피해 새로운 이미지와 언어의 가공미를 추구한 김기림·정지용·이상 등의 모더니즘 시, 문학 자체의 순수성을 옹호하고 전통적인 서정성을 추구한 박용철·김영랑 등의 시문학과 시, 생명의 본질을 구경적(究竟的)으로 탐구한 유치환 등의 생명과 시가 등장한 것이다. 그렇지만 일제의 군국주의가 강도를 더해감에 따라 새로운 시들이 제 영역으로 확대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일제가 대동아공영권을 본격적으로 추구하면서 만주사변을 일으킨 1931년 이후에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일제는 조선의 시인들에게 국민 총동원령에 협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황국신민화의 선전에 앞장설 것을 강요했다. 다시 말해 “1931년 9월 만주 침략 이후에 일제는 전시하의 비상체제에서 탄압정책만으로는 이른바 ‘제국판도’ 내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일본내외 식민지 모두에 ‘국가주의운동’을 전개하면서 적극적인 사상통제에 나서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위협과 회유의 양면정책으로 사상 ‘전향’을 유도하여 한국인들로 하여금 민족운동을 포기하게 하고 이를 통치선전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전향공작에 나서게 되었다.”²²⁾ 그에 따라 조선문인협회 같은 친일 문인단체가 생겨났고 시인들의 친일시가 등장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정심이 민족 해방을 노래한 것은 주목된다.

밤을 격한 오늘

오늘에 지나간 어제는

22) 김영희, 『1930년대 일제의 민족분열통치 강화』,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179~180쪽.

옛날에 이름을 띠고 가고
오늘밤 마치는 새벽은
새날의 날개를 펴고 왔소

옛날은 한숨 쉬이고
가시로 꼬은 줄을 잡고
어둠의 나라 사막을 지나
풍랑이 심한 고개를 건너
영원히 새날을 떠나갔소

한눈의 눈물 한눈의 웃음
어제는 실패와 후회를
잔뜩지고 돌아가고
새날은 승리와 행복을
잔뜩 안고 돌아 왔고

새 날은 가만히 웃음을 띠우고
평화의 옷을 지어 입고
자유의 수레에 실리어서
기쁜 웃음 즐거운 노래로
우리 조선을 찾아왔소

- 「옛날과새날」 전문

위의 작품에서 “새날”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옛날”은 화자가 살아가는 “오늘”이 된다. 그 “오늘”의 상황은 “한숨 쉬이고/가시로 꼬은 줄을 잡고/어둠의 나라 사막을 지나/풍랑이 심한 고개를 건너”야 할 정도로 참담하다. 주권을 박탈당한 조선인들에게 “새날”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하여 가시가 깔린 길을 걸어가야 하고, 어둠이 깔린 사막을 건너야 하며, 풍

랑이 심한 바다를 헤쳐 나가야만 한다.

그렇지만 화자는 한숨 쉬거나 눈물 흘리며 좌절하지만은 않는다. “한눈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다른 “한눈의 웃음”을 가지려고 각오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제는 실패와 후회를/잔뜩지고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새 날은 승리와 행복을/잔뜩 안고 돌아”올 것을 믿는다. 단순히 희망하는 것을 넘어 역사의식으로 민족 해방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화자는 “새 날은” “평화의 웃을 지어 입고/자유의 수레에 실리어서/기쁜 웃음 즐거운 노래로/우리 조선을 찾아왔소”라고 노래 부른다.

화자에게 “옛날”은 한숨으로 가시로 어둠으로 사막으로 풍랑으로 고개로 눈물로 실패로 후회로 연결되지만, “새날”은 새벽으로 웃음으로 승리로 행복으로 평화로 자유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연결된다. 그리하여 일종의 변증법적인 과정을 통해 해방된 “조선”에 이르는 것이다. 화자는 현재의 상황이 절망과 좌절로 점철되어 있지만 반드시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광복의 날이 도래할 것을 확신한다. 그리하여 견고한 역사의식으로 일제의 지배가 점점 고착화되는 상황에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장정심의 민족 해방 의식은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의 상황을 연상시킨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을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청하지만, 바로왕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고역을 강요한다. 모세는 그와 같은 바로왕에 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로 탈출시키는데,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 되리라는 것과 그곳에서 후손이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다.

장정심의 「옛날과새날」이 모세의 그 확신과 행동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두 민족의식이 강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시인은 비록 일제에 의해 주권을 빼앗겼지만 반드시 조선인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낙원을 되찾으리라고 역사의식으로써 확신하는 것이다. “조국의 역사가 눈물의 역사이었고 변민과 신음

의 역사였다면, 미래에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리라는 희망을 노래하여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광복을 예견하는 시의 예언적 기능을 보여주고 있”²³⁾는 것이다. 그만큼 장정심의 민족 해방 의식은 당당하고 낙관적이었다.

헌새야 너는 이강산에 자란 몸이니
두 날개 짝 버리고 높이 날아
네무대가 어떠한가 눈늛혔다
뉘와서 묻거든 본대로 일러주어라

백조야 너는 이산간에 주조되어
객조들이 찾아올제 손으로 맞이하라
못새들 네배경을 구경하다
감간놀다 갈터이니 시비마라

백의의 환경에서 길이운 네몸
네힌털을 행여 드렐세라
남이란 네힌것을 새우리니
록음방초 지나갈제 조심하여라

악풍폭우 심히온다 겁내지마라
역경에 네야 이땅의 풍운아이다
적은바람 큰바람 쉬일날이 없나니
얼른자라 대담하게 훨훨 날아보라

- 「헌새」 전문

23) 정영자, 『한국 여성문학 연구-1920년대·30년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1987, 82~83쪽.

화자는 “헌새”에게 “악풍폭우 심히온다 겁내지마라”라고 노래하고 있다. “역경에 네야 이땅의 풍운아”이고, “적은바람 큰바람 쉬일날이 없”는 것이 운명이므로 당당히 맞서야 된다는 것이다. 화자가 “헌새”에게 이와 같은 자세를 제시한 것은 미래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네무대가 어떠한가 눈낙했다/뉘와서 묻거든 본대로 일러주어라”고 “헌새”에게 부탁하는 것은 민족의 해방이 반드시 도래한다고 믿는 것이다. “객조들이 찾아올제 손으로 맞이하라”고 당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장정심의 노래는 1930년대 시의 흐름과는 구별된다. 동시대에는 일제의 제국주의 침략이 노골화되면서 민족 말살의 위기가 가시화되었다. 그에 따라 시인들은 식민지 현실을 직접적으로 고발할 수 없었고, 언어의 가공미를 추구한 모더니즘 시나 자연과 인간의 생명을 노래한 순수시 등으로 비정치적인 면을 띠거나 내면화시켰다. 현실 세계를 직시하지 못하고 회피하거나 신음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장정심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민족 해방의 노래를 불렀다.

구슬을 끼인듯

연결된 어제와 오늘

국경을 한한듯

나누인 옛 해와 새해

옛 날은 눈물로 보냈으나

새 날은 웃음으로 맞이하오

생각으로 표정으로 부터

가정에서 사회까지

옛 날의 빈곤과 억울이

우리를 놀렸으나

새 날은 평화와 행복이

우리를 찾아왔소

맞이하는 맘아 맘껏 힘껏

새 살림을 만들자

새 노래를 부르자

이 땅의 바라난 자손들이여!

- 「새해」 전문

위의 작품에서 화자는 “맞이하는 맘아 맘껏 힘껏/새 살림을 만들자/새 노래를 부르자”라고 노래 부른다. “옛 날은 눈물로 보냈으나/새 날은 웃음으로 맞이하”고, “옛 날은 빈곤과 억울이/우리를 눌렀으나/새 날은 평화와 행복이” 찾아오리라고 믿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화자의 바람은 “가정에서 사회까지”라거나 “이 땅의 바라난 자손들이여”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는다.

일제의 강압적인 상황에서 민족 해방을 노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용기를 가져야 하고, 민족 해방에 대한 역사적 전망을 가져야 한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지사다운 절개로 민족 해방을 노래한 이육사나 윤동주가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 장정심의 시도 그와 같은 차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비록 두 시인에 비해 민족인으로서의 생애나 시적 성취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조선인다운 용기와 역사적 전망을 노래한 점은 인정해야 된다.

장정심의 시세계는 같은 시기에 활동한 노천명·모윤숙·김오남·오신혜 등의 시세계와도 구별된다. 노천명이나 모윤숙의 경우는 친일활동을 했기 때문에 더욱 대비적인 관계에 있다. 오신혜나 김오남의 경우는 서정적인 시조를 통해 일제의 핍박에 신음하는 조선 민중들을 나름대로 담아냈지만, 장정심처럼 민족 해방을 노래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앞날이 불안하기만 하던 시기에 민족 해방을 노래한 장정심의 시들은 주목되는 것이다.

3. 결론

일제는 3·1운동 이후 취했던 소위 문화통치를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폐기하고 강압적인 통치 방식으로 돌아섰다. 제국주의의 야욕을 추구하기 위해 중일전쟁(1937)과 태평양전쟁(1941)으로 확대하면서 식민지 통치를 보다 강화한 것이다. 따라서 1930년대에 일제가 조선에서 펼친 공업화 정책은 어디까지나 병참기지로 삼는 것이 목적이었다. 조선인들의 생활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가혹한 수탈과 감시에 견디지 못하고 북방으로 이주하는 조선인들의 수가 늘어났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의 분위기로 말미암아 시단에서도 정치적인 관심을 배제한 김영랑·박용철 등의 순수시나 김기림·정지용·이상 등의 모더니즘 시, 생명의 본질을 구경적으로 탐구한 유치환 등의 생명과 시가 등장했다. 심지어 이광수·서정주·모운숙·노천명 등의 친일시도 등장했다. 식민지 시대의 계급 문제를 민족 문제로 인식하고 형상화한 카프 시인들도 더 이상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임화·권환·박세영·이찬 등이 작품 활동을 했지만 이전 시대만큼 민족의 저항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또한 1930년대까지만 해도 조선 사회는 유교 질서가 지배해 남성주의와 보수주의가 팽배했고, 감리교를 제외한 기독교계(界)가 정치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상황이었다. 장정심은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견고한 자아인식을 바탕으로 낙원 인식과 민족 해방 의식을 당당하게 노래했다. 마치 하느님을 믿고 따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했듯이 장정심 역시 민족 해방을 추구한 것이다.

장정심은 일제의 탄압으로 고통당하는 조선인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기독교인으로서의 길을, 민족의 구성원으로서의 길을, 그리고 시인으로서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다. 그 결과 이전 시대에는 포교나 계몽을 위한 수단으로 쓰였던 기독교 시를 시문학 자체로 발전시켰다. 주제 의식 및 형식미를 갖춰 기독교 시를 시문학의 한 분야로 확립시킨 것이다.

따라서 1930년대의 시문학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함몰된 장정심의 시 세계를 더욱 발굴하고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자아 인식과 민족의식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이외에도 원죄를 가진 존재로서 갈구한 종교적 해방이나 기존의 가부장제 사회로부터 해방을 추구한 여성 인식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운동주를 비롯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암울한 시대를 극복하려고 한 시인들 간에도 영향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장정심, 『주의 승리』, 한성도서주식회사, 1933.

장정심, 『금선』, 한성도서주식회사, 1934.

해설 찬송가 편찬위원회, 『해설 찬송가』, (주)아가페출판사, 2004.

협성여자신학교 학생기독교청년회, 『백합화』 3, 협성여자신학교 학생기독교청년회, 1929.

2. 국내 논저

강미경, 『한국 현대시의 기독교 수용 양상』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권기호, 『감리교 선교사들의 개화기 교육 활동 연구』, 박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2010.

김영희, 『1930년대 일제의 민족분열통치 강화』,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179~180쪽.

맹문재, 『1930년대 여자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 고찰』 『한국학연구』 29, 2008, 31~55쪽.

서광선, 『한국여성과 종교』, 『한국여성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524~525쪽.

- 신흥규,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기독교 의식 연구』,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1997.
- 양미강, 『일제하 한국 기독교 여성운동에 관한 연구- 1920~30년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88.
- 역사위원회 엮음, 『한국 감리교 인물 사전』, 기독교 대한 감리회, 2002..
- 와카바야시 미시오, 정선태 옮김, 『지도의 상상력』, 산처럼, 2006.
- 윤은순, 『1920·30년대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 연구』, 박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2008.
- 이길연, 『1930년대 기독교시의 현실 극복과 문학적 형상화-이용도와 장정심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6, 2005, 247~279쪽.
- 이명숙, 『일제 강점기 여류시조 연구 : 김오남, 오신혜, 장정심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1997.
- 이세벨라 버드 비숍, 이인화 옮김,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살림, 2001.
- 정기원, 『19세기 전반 영국 감리교와 노동계급』,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사학과, 1997.
- 정세화, 『한국 근대 여성 교육』, 『한국여성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290~295쪽.
- 정영자, 『한국 여성문학 연구』, 박사학위 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1987.
- 한자경, 『자아의 연구』, 서광사, 1997.

Abstract

A Study on Christian World View of Jang, Jung Shim's Poetry

- On the formation of Self and National consciousness -

Maeng, Mun Jae

Jang, Jung shim was a preacher and poet in 1930s. She was born in 1898 in Kyonggido Gaesung, and graduated Ehwa women's college and Hyubsung women's theological college. She served as a preacher in Methodism. In addition to that, she published two volumes of collection of poems, namely 『Our Lord's Victory』, 『Korean harp strings』. she saw the independence of motherland and after that she passed away because of disease in 1947.

In 1930s Japanese ruling method changed from 'cultural administration' to military government. 'Cultural administration' is occurred because of 3·1 independence movement of Korean, which later actually became the stratagem of Japanese's rule.

Therefore, 1930s oppressive way of Japanese rule is really intended. Japan invaded China and Southeast Asia, showing straightly aggressive ways. According to that situation, Korean's pain, anxiety, sadness, anger, despair, frustration and lots of difficulties increased.

Christian consciousness was brought into Jang, Jung Shim's poetry of 1930s. Consequently, Independence consciousness of korean people was raised, deepened, and earnestly desired. Historical consciousness also became increased and firmed. Jang,

Jung Shim was the one of the pioneer christian poets in 1930s.

Key words: Jang Jung Shim, Christian poetry, Self consciousness, Paradise consciousness, National Liberation consciousness, 『Our Lord's Victory』, 『Korean harp strings』.

■ 본 논문은 4월 30일에 접수되어 5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5월 28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